

고향 온 기성용 “아스널? 지금은 휴가중... 쉬고 싶어요”

광주 FC 후원금 1000만원·경기장 찾아 응원 소외이웃에 1000만원 상당 U대회 입장권 기부 2세 소식·성공적 재활·빅클럽 관심 등 겹경사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고향을 찾은 프리미어리그 기성용(26·스완지시티)은 한층 더 성숙해져 있었고 여유가 넘쳤다.

광주가 배출한 슈퍼 스타 기성용이 지난 30일 광주 FC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K리그 클래식 경기가 열린 광주월드컵경기장을 찾았다. 고향팀 응원을 위해 곁을 한 기성용은 광주 FC의 단장을 맡고 있는 아버지 기영욱씨와 경기에 앞서 팬들과 하이파이브 행사를 갖는 등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팬들의 사인 공세와 사진 촬영 요청이 쏟아졌지만 내내 밝은 표정으로 ‘광주 FC 홍보 도우미’ 역할을 자처했다.

“시즌을 끝내고 와서 삶이 좀 빼졌다.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다”고 웃은 기성용은 “좋은 시즌을 보내고 왔다. 축구 외적으로도 아기도 생기고 행복한 일들이 많았다. 무릎 수술이 잘돼서 조깅을 하고 있고 충분히 시즌에 맞춰 회복가능한 상태다”며 만족스러워하던 시즌을 돌아봤다.

다시 찾은 올 시즌 광주 FC는 기성용에게 더 특별한 팀이 됐다.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을 대표하는 팀이자 아버지가 단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기성용은 “오랜만에 와서 팬들과 만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사인회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경기의 주인공인 광주 선수들에게 패를 끼치지 않는 부분에서 하이파이브를 하게 됐다”며 “뜻깊은 날인 것 같다. 태어난 고향이 광주고 단장님이 여기에 계신다. 나도 더 응원하게 됐다. 광주가 좋은 보여주고 있는데 좋은 순위로 시즌을 마감하면 좋겠다”고 응원의 목소리를 냈다.

많은 이들의 궁금해 하는 다음 시즌에 대해서는 ‘휴가중’이라며 구체적인 답은 하지 않았다.

기성용은 “다른 클럽이 관심이 있다는 소식은 인터넷으로 봤다. 관심을 보였다는 점이 뜻 깊다.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관심이 생긴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휴가중이다. 축구를 내려놓는 시간이다. 항상 이야기했듯이 충분히 활약할 수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뛰는 게 중요하다. 지난 시즌도 그런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차기 행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더 먼 미래에 대한 구상은 ‘책임감’으로 설명했다.

기성용은 “아직까지는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은 없지만 현역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우선인 것 같다. 축구선수로서 안팎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어려운 계층을 위한 계획은 많이 세우고 있다. 좋은 일을 하는 게 내 책임감이다”고 말했다.

현역 막바지 K리그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K리그는) 내가 몸담았던 리그이고 크고 성장할 수 있었던 곳이다. 마지막에 이곳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는 게 책임감이라고 생각한다. 함께 축구를 했던 이들과 마지막을 함께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고 외국에서 배운 좋은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기성용은 이날 광주 FC 후원금 1000만원과 소외 계층을 위한 1000만원 상당의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입장권을 기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기성용이 30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5' 광주FC와 제주의 경기를 찾아 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기’ 받은 광주 득점포 가동 K리그 13R 제주에 1-0 승...7위로 3계단 상승

광주 FC가 4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하며 승전보를 울렸다.

광주 FC가 지난 30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K리그 클래식 13라운드 경기에서 이종민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안방에서 계속됐던 3경기 연속 무득점·무승의 답답한 행진에서 벗어나는 값진 승리였다.

골 점목을 갠 것은 베테랑 이종민이었다. 원정 10연전을 앞두고 치른 5월 마지막 홈 경기에서 광주 선수들은 경기 시작부터 강

하게 제주 진영을 파고들었다.

경기 시작 2분도 안 돼 절호의 득점 기회를 잡았다. 왼쪽 측면에서 이종민이 땅볼 크로스를 하며 공격 개시를 알렸다. 김호남이 공을 피하며 파비오에게 넘겼고, 공을 받은 파비오가 다시 중앙으로 침투하던 김호남에게 패스를 했다. 그리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 김호남이 상대 수비수에 걸려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지난 12라운드 부산과의 경기에서 실수를 하며 아쉬움을 삼켜야 했던 김호남을 대

신해 백전노장 이종민이 키커로 나섰다. 이종민은 침착하게 오른 발로 골대 왼쪽을 겨냥하면서 쌓여있던 골 갈증을 해소했다.

이후에도 광주의 돌진은 계속됐다. 전후반 제주가 단 하나의 유효슈팅도 기록하지 못한 사이 광주는 4차례 골을 시도하면서 상대를 압박했다. 아쉬운 득점 기회가 몇 차례 눈에 띄었지만 광주는 1-0의 리드를 지키며 에타게 기다렸던 승리를 신고했다. 이날 선발 출전에 나선 주장 임선영은 광주 FC에서만 100경기를 채우면 팀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스타로 우뚝 섰다.

100경 출장 경기에서 무승의 고리를 끊은 임선영은 “팀이 최근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기겠다는 생각, 팀을 위해 하려는 생각이었는데 승리까지 해서 겹경사가 됐다. 동료들이 잘해줘서 이런 기록과 승리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승점 3점을 한번에 추가한 광주는 4승4무5패(승점 16)가 되면서 10위에서 7위로 상승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원투펀치 퍼즐 완성



양현종, 직구 150km·평균자책점 1.67 에이스 본능

스틴슨, 강적 삼성에 8이닝 무실점...6월 기대감 ‘업’



양현종



스틴슨

한 험버가 다음주 선발전에 합류한다. 김병현은 중간에 대기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덕아웃 특·독

김기태 감독 “4번타자 할래?”

강한울 “훈련 4세트 하라구요?”

▲“깨끗하더라도요.” = KIA에게는 아찔한 사구였다. 지난 30일 NC와의 경기에서 이종구가 이민호의 타구에 손등을 맞으면서 주저앉았다. 올 시즌 3할 타격 속에 든든한 안방마님으로 자리를 잡은 이종구였던 만큼 벤치의 긴장감은 컸다. 괜찮다는 이종구의 의사에도 바로 교체된 벤치는 병원 검진을 받게 했다. 다행히 결과는 이상무. 지난해에도 공에 손등을 맞아 골절 부상을 입었던 이종구도 노심초사했던 순간이었다. 이종구는 “부러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 빌었다. 검사 결과를 보니까 깨끗하더라”며 웃었다. 이종구는 큰 이상 없이 31일에도 8번 타자로 나와 마스크를 썼고, 첫 타석에서부터 안타를 기록했다.

▲“나가서 휘저어줘.” = 공격형 1번 타자 신종길이다. 부상에서 복귀한 신종길은 1번 타순에 서서 공격을 시작하고 있다. 30일 경기에서는 투런까지 쏘아올리는 등 신종길 특유의 파워 있는 타격을 과시했다. 신종길은 31일 경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공격형 1번 타자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아직 아쉬운 게 하나 있다.

리그를 대표하는 스피드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공격형 1번 타자’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상우는 “나가서 휘저어줘”라는 말로 신종길의 발랄함까지 부각을 했다.

▲“4번 타자 할래?” = 요즘 부쩍 페이스가 떨어진 필이다. 공·수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는 라 고군분투. 지난 29일 “필이 요즘 힘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오늘도 4번 타자냐?”는 질문이 나오자 잠시 고민을 하던 김기태 감독. 김 감독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훈련을 하고 있던 강한울의 이름을 외쳤다. “4번 타자 할래?”. 멀리 떨어져 있던 강한울은 고개를 가우뚱하며 손가락 4개를 퍼들었다. “뽀로스 훈련 4세트?”라는 의미였다. 어리둥절한 강한울의 반응에 덕아웃에는 웃음이 터졌다. 29일과 30일에도 4번 타자 겸 1루수로 선발 출전했던 필은 31일 경기에서는 지명타자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4번 타자 제안을 받았던 강한울은 뒤늦게 “대학 때 4번 타자도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자리는 2번이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마운드 엿박자 속에 더욱 빛나는 원투펀치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야구다. 시즌 초반에는 운석 민으로 뒤를 채운 불펜진이 탄탄하게 돌아갔다. 선발만 이닝 소화력이 늘어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선발진이 모습을 갖추자 불펜진이 불판이 됐다. 불펜이 흔들리면서 늘어나는 마운드의 역전극. 그나마 위안은 매서움이 더해진 원투펀치다.

양현종에게 드디어 에이스라는 칭호가 어울리게 됐다. 평균자책점을 잘 지켜왔지만 내용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양현종을 대표하는 직구 구위가 숨을 죽이면서 매 경기 어렵게 승부가 이뤄졌다. 그러나 양현종이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 에이스 본능이 깨어났다.

지난 23일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가장 많은 134개의 공을 뿌리며 8이닝 무실점을 찍었다. 직구 구속도 150km로 오르면서 난적을 제압하며 4년 만의 삼성전 위닝 시리즈를 이끌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적 NC 타자들까지 침묵시키면서 에이스의 귀환을 공식화했다. 양현종은 지난 29일 NC전에서도 7이닝 무실점의 행진을 이어갔다. 앞선 등판에서 많은 투구수를 던졌지만 그 여파는 없었다. 7회까지 던진 공은 89. 완투까지 가능한 페이스였지만 타선의 대폭발로 10-0까지

점수가 벌어졌던 상황이라 양현종은 7회의 완투투를 끝으로 마운드를 내려왔다.

“드디어 내 공을 던지는 것 같다”는 양현종이 잃었던 밸런스를 찾으면서 위력은 더해졌고, 평균자책점은 1.67까지 떨어졌다.

스틴슨도 양현종과 호흡을 맞추면서 드디어 원투펀치의 구색을 갖추게 됐다.

시즌 초반에는 특색 없는 ‘미운 오리 새끼’였다. 3·4월 5경기에 나와 5.34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면서 불안불안한 투구를 이어갔다. 매경기 파홈런이 나왔고 5경기에서 소화한 이닝도 23.2이닝에 그쳤다. 그러나 5월 들어 조금씩 스팀이 달라졌다.

공격적인 승부와 함께 스팀의 이닝이 길어졌다. 삼성전에서는 탈삼진 하나 없이 땅볼을 유도하며 8이닝을 무실점으로 지키며 짜릿한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30일 NC전에서 중요한 길목에서 불넷을 내주며 아쉬움을 남기는 했지만 6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에는 충분했다.

원투펀치를 가다듬은 KIA는 6월 마운드 재정비를 준비하고 있다. 한 박자 쉬어간 서재응이 주중 두산과의 원정 경기에 선발로 재출격하고 2군에서 재출전을